

구약논찬

제 17권 2호(통권 40집) 2011년 6월 30일

장 석정(관동대) 일곱째 재앙 경고(출 9: 13-21) 재고	12
이 논문은 출 9장 13-21절의 본문을 분석함으로 우박재앙에 나타난 '개념성'(概念性)을 추적하고자 한다.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일곱째에 해당하는 재앙을 다루는 본문(출 9: 13-35)은 길이가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자는 이것을 두 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는데, 이 논문은 그 첫 번째 것이다. 저자는 이 연구를 통해서 우박재앙의 본문에 나타난 '개념성'이 이전의 6개의 재앙의 경우처럼 죽음의 공간인 '땅'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Chang, Sok Chung The Warning of the Seventh Plague(Ex 9: 13-21) Reconsidered	12

일곱째 재앙 경고(출 9: 13-21) 재고

장 석정 | 관동대

1. 서론

본 논문은 출애굽기 9장에 기록된 소위 '우박 재앙'이라고 불리는 일곱째 재앙을 주석하여 그 속에서 발견되는 '개념성'(conceptuality)을 추적하는 작업이다.¹⁾ 주석 작업을 통해 본문에서 발견되는 동사의 선택경향이나 재앙의 결과로 피해를 입는 대상의 의도적 수렴에 관한 관찰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재앙을 기록한 본문의 각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개념인 개념성을 추적하는 연구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우선 우박 재앙은 열 가지 재앙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편에 속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의 논문만으로 본문을 철저히 분석하여 완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박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기록된 본문(9: 13-21)과 궁극적으로 우박의 재앙이 실제로 내리게 되는 상황을 묘사한 본문(9: 22-35)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고, 본 논문은 전반부의 본문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²⁾

1) '개념성'을 추적한다는 것은 성서에 기록된 본문의 내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의 내용이 지향하고 있는 중심적인 개념을 밝히는 작업을 말한다. 따라서 단어 자체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도, 암시된 단어가 나타내는 개념이 '개념성'이 될 수 있다.

2) 우박재앙의 본문을 둘로 나누어서 연구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히브리어 본문에 단락(paragraph)

우박이 내리는 일곱째 재앙에 관한 연구는 필자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온 열 가지 재앙의 개별적인 연구의 연속선상에 있다. 첫째 재앙의 연구에서부터 각 재앙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측면을 개념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리하려고 시도해 왔다. 지금까지 이렇게 각 재앙들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출애굽기 주석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선 여섯 가지의 재앙들이 기록된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개념성은 다름 아닌 ‘땅’이라는 것을 거듭 입증할 수 있었다.³⁾ 일곱째 재앙의 경고 본문은 어떤 개념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자.

2. 본문: 본문지역 및 주석

(13) 그 후에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브리 사람의 신,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13절에는 ‘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 본문이 지시하고 있는 것은 애굽 땅과 애굽 밖의 땅이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오직 애굽 땅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4) 이번엔 내가 모든 나의 재앙들을 네 마음⁴⁾과 네 신하들과 네 백성들에게

나누기 표시인 פ가 있기 때문이다. 이 표시는 새로운 토픽(topic)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일곱째 재앙은 비록 한 가지의 재앙 이야기지만, 그 속에 새로운 토픽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로 인해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된다. פ는 פתוחה ושרה라고 부르는 단락표시로서 ‘열린 단락’(open paragraph)이라는 뜻이며, 중세후기 마소라 필사본들 속에서 사용되었다. Im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Fortress: Minneapolis, 2001), 50-51쪽.

- 3) 장 석경, “첫째 재앙 재고(출 7: 14-25),” 『신학사상』 128집(2005/봄), 35-58쪽; “개구리 재앙(출 8: 1-15) 재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40집(2005), 71-96쪽; “이 재앙(출 8:16-19)의 새로운 이해,” 『구약논단』 제 17집(2005), 9-31쪽; “넷째 재앙(출 8: 20-32) 재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7집(2010), 5-26쪽; “다섯째 재앙(출 9: 1-7) 재고,” 『신학사상』 제 150집(2010/가을), 7-36쪽; “여섯째 재앙(출 9:8-12) 재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73집(2011), 55-74쪽. 총 23절로 된 일곱째 재앙 본문에서 ‘땅’이라는 단어가 12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땅’의 개념이 이 재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 준다.

보낼(נָשַׁל סָלַח)⁵⁾ 것이다. 그래서 온 땅에 아무도 나와 같이 앓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모든 나의 재앙들’(כָּל צָרָתִי) 막계포타이⁶⁾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곱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 내리는 실제 상황이 기록된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둥과 우박과 불이라는 복합적인 기상재해들로 구성될 것임을 미리 알려준다.⁷⁾ 재앙이 내리는 곳은 당연히 애굽 땅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흥미롭게도 그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애굽 사회의 세 가지 계급이 언급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즉, 바로와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세 가지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대신에 ‘네 마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왜 ‘너’라는 표현 대신에 ‘네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일까? 70인역에는 이 부분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백성들의 마음에”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이 바로만이 아니라, 신하와 백성들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다.⁸⁾ 여기에서 몇 가지 번역의 예를 검토하기로 한다.⁹⁾

1987	Durham	against your mind
1996	Houtman	upon you
1999	Propp	against you

- 4) 개정개역판의 번역을 보면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라고 되어 있다. ‘네 마음’이라는 원래의 표현 대신에 굳이 ‘너’라고만 번역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표현 자체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정개역판 각주에 “히, 네 마음과”라고 되어 있어서, 히브리어 본문이 ‘네 마음’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번역된 본문에 ‘네 마음’ 대신 ‘너’를 쓴 것은 이 번역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5) 이 동사를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 성경, 그리고 표준새번역 성경에는 “재앙을...내려...”로 번역함으로써 ‘보내다’의 의미를 희석시켜버렸다. 파리 재앙에서도 파리를 보낼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히브리어 נָשַׁל(살라흐)가 사용되었다(8: 17).
- 6) 복수형태가 사용되고 있는데, 구약성서에서는 오직 여기에만 복수형이 사용되었다. 영어번역으로는 ‘plagues’, ‘afflictions’, ‘blows’ 등이 있으며, 우리말 번역은 ‘재앙’으로 수렴된다.
- 7) 14절의 ‘모든 나의 재앙들’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복수형이 사용된 것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Cornelis Houtman, *Exodus* (vol. 2),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6), 85-86쪽.
- 8) William Propp, *Exodus 1-18* (AB 2), (New York: Doubleday, 1999), 301쪽.
- 9) John Durham, *Exodus*, (Texas: Word Books, 1987), 123쪽; Houtman, *윗글*, 85쪽; Propp, *윗글*, 289쪽.

번역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더햄(J. Durham)은 MT 본문대로 ‘네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반면에 하우트만(C. Houtman)과 프랍(W. Propp)은 ‘너라고만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햄은 그의 주석서에서 그가 이렇게 MT의 본문을 그대로 번역하고 있는 이유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¹⁰⁾ 이에 반해서 하우트만은 **קַבְּלָהָא**/엘 리버카(MT) 대신에 **קַבְּלָהָא**라고 본문을 읽으려는 제안이 있어왔음을 언급하면서, MT의 본문보다는 이 제안에 따라서 ‘너’라는 번역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MT가 기록한대로 ‘네 마음’이라는 표현이 원래 본문의 의도가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바로는 그가 결정을 내리는 마음 중심에 상처를 입어서 평정심을 잃고 그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¹¹⁾ 한편, 프랍 역시 대부분의 사본들이 MT의 본문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MT 본문을 **קַבְּלָהָא**라고 수정(emendation)하는 드라이버(Driver)의 제안을 임시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가 잘 통하고 이어지는 본문과도 더 잘 병행이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MT 본문은 히브리어 글자의 혼동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청각적인(aural) 혼동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그가 이러한 ‘너라고 번역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이런 MT 본문에 대한 수정이 그 본문에 대한 미세한 뉘앙스를 없앨 수도 있다는 것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만일 MT 본문이 맞다면, LXX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백성들의 마음에”라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²⁾

포드(Ford)는 여기에서 사용된 ‘네 마음’이라는 표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우박의 재앙이 시작되기 바로 전의 본문인 9장 12절에서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즉, 이전까지의 5가지 재앙들에서는 각 재앙의 마지막에 바로 자신이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여섯째 재앙이 끝나는 9장 12절에서는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비로소 처음 6가지 재앙과 나머지 4가지 재앙으로 나뉠 수 있다고 보고 있다.¹³⁾

10) Durham, *읽기*, 125-128쪽.

11) Houtman, *읽기*, 86쪽.

12) Propp, *읽기*, 301쪽.

13) William Ford, *God, Pharaoh and Moses: Explaining the Lord's Actions in the Exodus Plague Narrative*, (UK: Paternoster, 2006), 153쪽. 이에 대해서 호르트(Hort)는 앞의 여섯 가지 재앙들은 나일강에서 발생한 재앙이고 나머지 네 가지 재앙들은 이것들과는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여섯째 재앙이 끝나는 부분에서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곳 일곱째 재앙에서는 여호와가 재앙은 바로의 마음에 내린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마음'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서 마음에 내리는 재앙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는"이라는 14절의 시작문구도 이러한 측면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일곱째 재앙은 앞의 여섯 가지 재앙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¹⁴⁾

필자는 여기에서 포드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면서 동시에 프랍과 하우스만의 번역을 반박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박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고, 이제 시작되는 우박의 재앙은 그 완강하게 된 바로의 마음에 내리는 것이며, 동시에 LXX 본문이 제안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마음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에 재앙이 내리고 신하와 백성들의 경우에는 바로의 마음 여부에 좌우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마음'이라는 단어 없이 기록되었다고 본다.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로 하여금 각 재앙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그에게 선택에 있어서 최대한의 융통성(flexibility)을 허용해 준다는 뜻도 아니다. 오히려 여호와는 바로의 마음을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¹⁵⁾ 즉, 바로는 여호와가 의도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일곱째 재앙이 바로의 마음에 내릴 것이라는 표현이 의도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¹⁶⁾

재앙들이라고 본다. 또한 애굽에서는 우박이 드문 일이기 때문에 우박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왔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James K. Hoffmeier, *Israel in Egypt: The Evidence for the Authenticity of the Exodus Tradition*,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147쪽.

14) Ford, 윗글, 153쪽.

15) 윗글, 154쪽.

16) 또한 이 구절에서는 '우박'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용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은 어떤 종류의 재앙이 내릴 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처음 13절부터 17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8절에 가서야 비로소 '우박'이 내릴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자체를 암시하는 표현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1장 10절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배신하여 적군의 편에 서서 싸우고 “땅에서 나갈까(**אָרָץ** 알라)17) 하노라”고 바로가 말하는 부분에서 처음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가는 출애굽 사건의 암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재앙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것이 아니라, ‘보낸다(**אָרָץ** 살라흐)’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 동사는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바로에 대한 명령(말씀)에서 사용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동사 자체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대한 예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것이 대부분의 한글 번역 성서에서는 ‘내리다’로 번역되어 있어서 히브리어 성서 본문의 원래 의도했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18)

14절의 후반부는 일곱째 재앙에서 처음으로 ‘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주목을 끈다. 재앙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이후에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온 땅’에 아무도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바로가 알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14절에서 16절까지 ‘땅’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애굽의 온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사용된 듯하다.19)

결국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태양신을 비롯한 여러 신들이 여호와라는 신과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애굽 왕 자신이 깨닫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 ‘앞의 요소’20)라고 부를 수 있는 측면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기록된 여섯 가지 재앙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각각의 재앙은 궁극적으로 바로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하는 목적을 가진다는 것이었다(7: 5, 17; 8: 10).

하늘에서 내린 재앙이 애굽 온 땅 안에서의 여호와의 절대적 우월성을 입증한

17) H. F. Fuhs에 따르면, 구약성서에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할 때 두 가지 동사(**אָרָץ**: 야차; **אָרָץ** 알라)가 사용되었고, **אָרָץ**(알라)동사는 출애굽 사건의 지리적인 이동의 측면을 강조했다고 본다.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XI), (Grand Rapids: Eerdmans, 2001), 85쪽.

18) 개역판, 개역개정판, 표준새번역 모두가 ‘내린다’는 단어를 사용하여 번역하고 있다.

19) Propp, *룻*, 333쪽.

20) 모든 재앙들이 바로의 마음에 내릴 것이고, 이에 따라 바로는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이라는 공통분모가 이 둘을 연관시켜주고 있다.

다. 결국 이 구절은 애굽의 모든 신적인 존재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 영역이 애굽 땅이며, 신들도 그 활동 영역의 중요한 부분이 ‘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가 애굽 다른 신들과 비교될 수 있는 영역이 애굽 땅 안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굽 땅 밖에서는 어떤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말해주지 않는 것은 이 본문이 관심 있는 부분은 과연 이 애굽 땅 안에서는 어떤가 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굽 온 땅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신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여기에서도 본문은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내가 손을 뻗어서(**אֶרְבֵּא** 살라호) 너와 네 백성을 전염병으로 쳤다면,
네가 그 땅에서 없어졌을 것이다(**אֶרְבֵּא** 카하드).

이 구절은 ‘땅’(**אֶרֶץ** 에레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도 중요한 신학적 논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여호와와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을 전염병 등으로 얼마든지 죽게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이 관심을 끈다. 왜냐하면 만일 여호와가 그들을 모두 죽였다면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살고 있는 땅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도 애굽 땅 안에서 평안히 잘 살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²¹⁾ 구약성서에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한 땅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즉, 이스라엘은 애굽 땅 안에서 잘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애굽 땅 밖으로 나가야만 여호와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염병으로 여호와가 애굽 사람들을 다 죽게 했다고 해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전염병이 언급된 것은 다섯째 재앙(9: 1-7)에서 애굽의 생축들이 죽음을 당했던 그 재앙의 원인이며, 결국 생축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전염병 재앙에서 가축뿐 아니라, 애굽왕과 애굽 사람들도 죽게 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²²⁾ 다섯째 재앙은 생축들의 죽음으로 그쳤고, 그것은 여호와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는 말이다.

21) 약속의 땅과 아브라함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 상래, “야훼의 ‘땅’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미 재해석,” 『구약논단』 제 30집 (2008년), 85-102쪽.

22) Houtman, 윗글, 87쪽; Propp, 윗글, 333쪽.

여호와가 손을 뻗어서 전염병으로 친다는 내용 속에서 ‘뺨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역시 **נָחַץ**(살라흐)가 사용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보내서’ 전염병으로 친다는 뜻이 된다. 이 동사가 가지는 출애굽의 암시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일곱째 재앙에서는 출애굽 사건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이 동사는 필연적으로 ‘땅’과 연관되기 때문에 땅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을 보내고, 하나님이 손을 보내는 것의 표현이 출애굽 사건과 궁극적으로 땅의 개념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전염병을 내렸다면, 왕과 애굽 백성들 모두 ‘그 땅’에서 없어졌을 것이라는 내용이 중요성을 가진다. 일단 전염병은 사람을 죽게도 하지만, 그 전염병을 피해서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죽음과 피신으로 인해서 애굽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된다. 여기 사용된 **נָחַץ**(카하트)동사는 니팔(niphal)형으로서 ‘멸망당하다’(be destroyed) 혹은 ‘사라지다’(be effaced)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애굽 땅 안에는 살아 있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뜻을 강하게 부각시켜주고 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주어가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서 전염병이 걸리는 것은 왕과 백성들 모두인데, 정작 그 땅에서 없어지는 것은 왕에게 국한되어 있는 듯 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또한 여호와의 계획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것에 있지 않고, 각 재앙들에 대해서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에 관심이 있다고 하겠다.²³⁾ 궁극적으로 재앙들을 통해서 여호와는 바로에게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재앙을 바로의 마음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보낼 것이고, 그 결과로 애굽 온 땅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당사자로는 바로 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본문에는 바로가 알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문맥상 신하들과 백성들도 알게 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15절에서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바로와 그의 백성을 쳤다면, 그 땅에서 없어졌을 대상도 바로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것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23) Ford, 윗글, 153쪽.

재앙의 타깃: 바로(의 마음), 신하들, 백성들 →→바로가 알게 됨.
전염병의 타깃: 바로, 백성들 →→바로가 없어짐.

물론, 바로만 언급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만 알게 되고, 바로만 없어진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 신하들과 백성들을 대표하는 바로가 언급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애굽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있다. 그렇지만 성서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을 가지고 볼 때 최소한 성서기자는 바로가 알게 되고 바로가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서기자가 바로만을 본문에 언급하고 다른 사람들, 즉, 신하들과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찰내용을 근거로 보면, 바로를 유독 강조하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재앙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인데, 왜 바로만 여호와가 애굽의 온 땅에서 비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가정법의 상황이라는 하지만,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역시 바로와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바로만 그 땅에서 없어지는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인가? 애굽에서 바로는 신으로 숭배되었기에 모세는 여호와의 대신해서 바로와 대결하고 있다. 따라서 바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며, 여호와가 어떤 신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도 바로가 알면 되는 것이고, 여호와가 전염병을 보내기만 하면 특히 바로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호와 하나님이 상대하는 것은 바로이며,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나 전염병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바로를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성서기자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16절에서도 바로를 살려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도 재앙의 초점이 바로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13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동사 **꺄꺄**(살라흐) 사용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그 사용 빈도를 보면, 일곱 절의 분량 속에서 무려 5회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다. 이 동사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말 번역은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개역	개역개정	표준재번역
13절 נָחַץ (살라흐)	보내라	보내라	보내어라
14절 נָחַץ (살라흐)	내려	내려	내려서
15절 נָחַץ (살라흐)	펴서	펴서	뻗어서
17절 נָחַץ (살라흐)	보내지	보내지	내보내지
19절 נָחַץ (살라흐)	보내어	보내어	보내어

이러한 관찰의 결과, 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다’라는 의미가 적절하게 번역되지 않아서 한글 번역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נָחַץ (살라흐) 동사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 14절의 경우에 “재앙을 내린다”는 번역이 이해하기 쉽게 보일 수 있겠다. 이것을 굳이 “재앙을 보내다”고 번역할 필요가 있겠냐고 반문하는 것도 이해될 수 있다. 또한 15절의 경우에도 ‘손을 펴서’ 혹은 ‘손을 뻗어서’라는 번역이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성서기자는 의도적으로 같은 동사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가정을 해보면 자연스러운 번역이 반드시 최상의 번역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13절에서 19절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성서기자는 이 동사를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13절에 나오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출애굽 명령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출애굽 사건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명사는 ‘땅’이 되겠지만, 동사를 선택하라면 마땅히 ‘보내다’ 동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출애굽 사건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본문에서도 이 נָחַץ (살라흐) 동사의 선택은 출애굽 사건이라는 개념을 전면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다른 동사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동사를 고집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7장 19절에서 모세가 하수 위에 지팡이를 잡은 손을 펴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 ‘펴라’는 동사는 נָחַץ (나타/stretch out)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15절의 “손을 뻗어서(보내서)”라는 표현은 נָחַץ (나타)대신에 נָחַץ (살라흐)를 사용함으로써, 출애굽 사건을 암시하는 동시에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6) 그러나 내가 너를 살려둔 목적은 네게 내 능력을 보여주어서,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서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언제라도 여호와와는 애굽 왕의 목숨을 뺏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고,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 애굽 왕이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그 존재를 믿는다면, 그의 백성들은 모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되고 믿게 될 수 있다. 결국 애굽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관건이고, 그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왕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온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²⁴⁾ 그러나 필자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온 애굽 땅과 우선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 안에 있는 한, 성서기자의 관심은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17) 아직도 너는 내 백성에 대해서 너 자신을 높이고, 그들을 보내주지(אל תשלח) 않고 있다. (18) 보라! 내일 이때쯤 내가 매우 심한 우박을 내리게(אני אגשם) 마머티르 (=cause to fall)²⁵⁾ 할 것이니, 애굽이 생긴 날부터 지금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봄이 되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thunderstorm)가 내리게 되는데, 우박의 직경이 5센티미터가 되는 것도 일반적으로 관측된다.²⁶⁾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방과는 기후조건이 다른 곳에 살았던 애굽 사람들의 경우는 심한 우박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여호와와 폭풍의 신으로 임재할 때, 종종 사용하는 징벌의 방법으로 우박을 사용했다(수 10: 11; 사 30: 30; 겔 13: 11, 13; 시 18: 13-14).²⁷⁾

우박을 동반한 재앙이 애굽에는 매우 드물어서, 이런 우박재앙은 엄청난 인상

24) Propp, 윗글, 333쪽. 프랍은 אֲרָצָה(하이레즈)라는 표현이 애굽 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세계(world)를 의미한다고 본다. 물론 אֲרָצָה(하이레즈)를 애굽 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용두사미(anticlimactic) 꼴이 된다고 주장한다.

25) 18절에 사용된 동사는 אָרַח(마타르)인데, אָרַח(살라흐) 동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14절에서 재앙을 내린다는 의미로 ‘보내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6) Houtman, 윗글, 89쪽.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에서는 그 무게가 대략 2 킬로그램이나 되는 우박이나, 그 크기가 거위 알만한 것도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27) Propp, 윗글, 351쪽.

을 줄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성서기자는 정작 이런 재앙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보다, 이 재앙 이야기의 독자들을 더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재앙 자체는 팔레스타인 환경에 잘 어울리고, 그래서 이런 우박이 내리는 기후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⁸⁾ 재앙이 내릴 시간을 여호와는 지정해주고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우박이 내린다는 것을 예고함으로써, 자연현상으로서 내리는 우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8절에서 재앙의 내용을 “매우 심한 우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우박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우박이 내린다는 것이다. “애굽이 생긴 날부터”라는 표현은 애굽의 기록에는 빈번히 나오는 것이지만, 정작 구약성서에는 한 나라가 세워진 것에 대한 언급은 이것이 유일하다.²⁹⁾

애굽이라는 나라는 적어도 기원전 3000년경에 세워졌다고 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에 애굽에 내린 우박들 가운데 가장 심한 우박이 내린다는 예고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필자가 ‘시간의 요소’라고 명명한 것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인 시간의 요소와는 구별된다.³⁰⁾ 왜냐하면 시간의 요소가 의미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각 재앙이 언제 시작될 것이고 언제 끝나게 된다는 시점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시간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애굽의 그 장구한 역사 가운데 우박의 내린 경우와 그 정도까지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성서기자는 오랜 애굽 역사에서 우박의 기록을 모두 알고 있는 여호와와 전능한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그 내용이 가리키고 있는 글자적인 측면 즉, 이번에 예정된 우박이 애굽의 역사에서 가장 정도가 심한 우박이 될 것이라는 사실만을 수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할 사항은 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우박의 내린 경우와 정도를 알고 있는 여호와가 누구지를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

28) 윌글, 351쪽; Houtman, 윌글, 84쪽.

29) **ἡ**라는 동사는 구약성서에서 여호와와 성전과 같은 건물의 기초를 놓는 일에 사용되었던 동사이다. 더햄(Durham)에 따르면, 반면에 24절에 나오는 ‘애굽이 한 나라가 된 때부터’라는 표현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1960년 까지 알려진 애굽의 기록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다. Durham, 윌글, 128쪽.

30) 장 석정, 『출애굽기의 출애굽』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58쪽.

아직 우박이 내리지 않았고 재앙의 경고를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 예고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이 당시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실제로 내리는 가장 심한 우박의 재앙을 경험해야 했다.

이 구절에서 심한 우박이 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라는 내용은 있지만, 앞으로의 역사에 있어서도 없을 것이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우박의 재앙 다음에 나오는 메뚜기의 재앙에서와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에서는 이런 언급이 나오기 때문이다.³¹⁾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심한 우박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기록이 없으니 당연히 이후에는 이 정도로 심한 우박은 내리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둘째, 기록은 없으나, 이후에는 이렇게 심한 우박이 없었다는 기록도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우박의 재앙 이후에 이 정도로 심한 우박이 내린 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랍비들은 마곡의 곡(Gog)왕의 경우(겔 38: 22)와 여호수아 시대(수 10: 11)의 우박사건을 염두에 두고 후자의 해석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³²⁾ 하지만 일곱째 재앙으로서의 우박과 다른 경우들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심한 경우인지, 혹은 비슷한 경우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 추측하는 것보다, 기록된 내용에서 출발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된다. 즉, 본문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번엔 내릴 우박은 지금까지 애굽 역사에서는 없었던 매우 심한 우박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정리하는데서 그쳐야 한다는 말이다.

(19) 이제 그러므로 네 생축들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안전한 피신처로 들여보내라; 왜냐하면 우박이 들에 있어서 집으로 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과

31) 메뚜기 재앙에서는“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10: 14)라는 내용이 나오며, 장자의 재앙에서는“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을 것이다”(11: 6)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32) Houtman, 윗글, 89쪽.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향으로 그와 그 모든 떼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겔 38: 22)”;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뱀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수 10: 11).”

짐승들에게 내릴 것이며, 그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20)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의 종들과 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했다. (21)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그의 종들과 짐승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19절은 우박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상들을 언급한다. 특히 19절 전반부에서는 “생축들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생축들은 분명하지만 “들에 있는 모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들에 나와 있는 일하는 종들과 동식물들이 포함될 것이다. 그렇지만 19절 후반부에는 “들에 있어서 집으로 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우박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전반부에서 언급한 생축들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에는 ‘짐승들과 ‘사람들(=종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들에 있었던 식물들에 관한 것은 22절-35절의 본문을 다룰 다른 논문에서 연구될 것이다.

우박이 내릴 것이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생축들과 사람들이 우박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시간적으로 보면 내일 이때까지 즉,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졌다. 더구나 우박을 맞게 되면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관건은 여호와의 말을 그대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지금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고하신대로 재앙을 내리셨고 애굽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호와의 예고편은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어도 될 것 같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신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정작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들 중의 일부였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다고 본문은 기록한다. 그들의 재산으로 간주되었던 종과 짐승들을 집안으로 들인 신하들은 우박의 재앙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고되었으니, 우박이 내린다고 믿었으며, 그로 인해서 생길 재산적인 손해를 막아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종과 짐승들을 집안에 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신하들은 종과 짐승들을 그대로 들에 두었다. 종과 짐승들의 생명은 전적으로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셈이 되는데, 절대복종이 필수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인들에 속한 종과 짐승들은 죽음을 당하게 될 운명이었다. 먼저 이 신하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우박이 내릴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종과 짐승의 생명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박이 내리더라도 희생 되는 종의 목숨과 짐승들은 큰 의미를 갖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앞의 여섯 가지 재앙들이 예고대로 내렸기 때문에도 예고된 것처럼 우박이 내릴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더라도, 이 신하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 ‘매우 심한’ 우박이라는 사실일 수도 있겠다. 즉, 사람과 짐승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한 우박이 내릴 것이라는 믿음은 신뢰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들이 체험한 우박은 목숨을 앗아 갈 정도로 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종과 짐승들을 들에서 집으로 들이지 않은 행동은 그들의 체험과 하나님의 경고말씀과의 대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애굽의 그 장구한 역사를 모두 아시고 가장 심한 우박이 내릴 것이라는 말씀과 이에 비해서 너무도 짧은 인생의 경험을 통한 지식과의 승부라고 하겠다. 당연히 결과는 명약관화한 것이며,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유한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고 말았다.

만일 애굽의 신하들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종과 짐승들을 전부 집안의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면, 원래부터 들에 있었던 풀과 나무들이 피해를 입는 것에 그쳤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일곱째 재앙은 그 타깃이 이 풀과 나무들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사람과 짐승들은 들에 나와 있었던 것이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풀과 나무들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들에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박의 재앙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재앙들에서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줌으로써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가 거절했기 때문에 재앙의 피해를 받게 되었다. 결국 일단 재앙이 내리면, 애굽은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일곱째 재앙에서는 그 구조가 깨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는 것 말고도, 우박의 재앙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여호와가 알려주신다. 종과 짐승을 집안으로 들여보내라는 것이다.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첫 번째 경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19절과 20-21절은 분명하게 구별되는 요소가 있다. 13절에서 시작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19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

게 하신 것으로서,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바로에게 전해야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19절 다음에 모세가 이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는 장면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그 장면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³³⁾ 20절과 21절은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신하들이 이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절과 20-21절 사이에는 시간적으로도 격차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신하들은 바로에게 전한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 성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는 성서기자가 이 과정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본문 전체(13-21절)를 통해서 ‘땅’과 ‘들’의 언급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하자. 우선 14절은 여호와가 재앙을 내려 ‘온 땅’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바로가 알도록 한다는 내용이며, 15절은 여호와가 전염병으로 바로와 그의 백성을 쳤으면, 바로가 ‘그 땅’에서 없어졌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16절은 여호와가 바로를 살려둔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기록한다. 결국 ‘땅’은 배타적인 여호와의 영역이며, 바로는 이를 입증할 도구라는 말이 된다. 그런데 19절에서는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우박으로 죽을 것이라는 예언말씀 나오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신하들은 그들의 종들과 짐승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땅’이라는 단어 대신에 ‘들’(77 사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들’이 지향하는 것은 개념적인 ‘땅’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월리스(Wallis)는 이런 사실을 구약성서의 다양한 용례들을 검토해서 확인해 주었다.³⁴⁾ 결국 이 우박재앙에서 사용된 단어인 ‘들’은 ‘땅’(77 에레츠)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으며, 재앙을 통해서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이 우박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하우트만에 따르면, ‘땅’과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운명을 같이하는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³⁵⁾ ‘땅’에 내리는 우박은 그 ‘땅’의 연합체인 사람과 짐승 같은 생명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땅’에 내림으로써 개념성으로서의 ‘땅’을 부각시켜준다.

33) Houtman, 윗글, 81쪽.

34) G. Wallis, *TDOT* (vol. XIV), 38-39쪽.

35) Houtman, 윗글.

다른 논문을 통해서 분석될 26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고 되어 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고센 땅이라는 공간에 우박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다. 결국 우박은 그 궁극적인 타깃이 애굽 ‘땅’이며, 애굽 사람들은 그 땅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재앙의 피해자들이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박재앙은 그 전반부 본문(9: 13-21)을 통해서 본문의 여러 개념들이 공통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개념성이 ‘땅’임을 보여준다. 우박은 애굽 땅을 이스라엘이 거할 수 없는 곳으로 초토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절차인 출애굽 사건을 실현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결론

일곱째 재앙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집밖에 있던 사람들과 동식물들을 죽게 만드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야외에 있는 것과 실내에 있는 것과의 차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실내외의 구분은 우연한 것이며, 단지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말씀을 심각하게 들었던 사람, 즉, 하나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박이 내릴 것이라고 믿었거나, 적어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느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일까?

또 다른 생각은 아무리 일곱째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경고말씀을 믿었다고 해도, 사람들과 동물들은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식물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경우에 식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말씀을 사람들이 믿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죽게 되는 운명이었다. 이런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이동할 수 있는 사람과 동물을 한편에 두면,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이 다른 한편에 있게 되는데, 이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이며, 그 차이점과 공통점들은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종들과 짐승들이었다. 풀과 나무는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 그렇다면 원래 우박의 재앙이 타깃으로 삼았던 것은 풀과 나무들 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바로의 신하들이 모두 여호와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였으면, 그래서 종들과 짐승들을 집 안으로 들여왔다면, 우박은 풀과

나무들에게만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결국 종들과 짐승들의 생명은 그들을 소유하고 있던 바로의 신하들이 여호와와의 재앙예고를 믿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도 종들과 짐승들뿐이고, 식물들은 그런 기회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이 종들과 짐승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집안으로 들어가거나 들에 계속 있거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신하들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집안으로 들여야 한다. 주인을 잘못 만난 종들과 짐승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집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그대로 들에 있어야 한다. 종들과 짐승들이 목숨을 건지려면 주인을 잘 만나야 하지만, 풀과 나무들은 그것에 상관없이 우박의 재앙의 피해자들이 되도록 결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앞의 여섯 가지 재앙들의 경우에는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믿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주지 않는 한, 재앙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었다. 재앙이 내리는 한 그 재앙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 재앙의 피해에서 열외가 되는 경우가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박의 재앙의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다룬 ‘경고(13-21절)’의 본문으로 인해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우박의 재앙이 이후에 이어지는 재앙들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 적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일단 재앙이 시작되면 애굽 사람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그 재앙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박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을까? 19절은 “네 생축들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안전한 피신처로 들여보내라”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들여보내지 않으면 그들이 들에 있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이어서 나온다. 결국 들이라는 공간에 있는 생명체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박의 재앙이 원래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들은 궁극적으로 개념적인 땅을 지향하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은 우박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잠시 머물러 있을 뿐이었고 집안으로(살내) 들어갈 수 있었던 생명체들은 살내로 들어감으로써 생명을 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간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우박의 재앙은 살내와 실외로 구분하여 실외에 있는 생명들, 곧 움직일 수 없이 원래부터 들에 살고 있는 식물들을 타깃으로 삼는 재앙임을 알 수 있다. 어느 공간에 있느냐가 재앙의

피해 대상에 속하게 되는가를 결정해주는 관건이 된다. ‘들’이라는 단어가 지향하는 개념성인 ‘땅’이 죽음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박의 재앙에 대한 경고본문이 궁극적으로 보여주하고자 하는 뜻이라 하겠다.

4. 참고문헌

- 김 상래, “야훼의 ‘땅’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미 재해석,” 『구약논단』 제 30집 (2008년), 85-102쪽.
- 장 석정, 『출애굽기의 출애굽』 (대한기독교서회, 1999).
- _____, “첫째 재앙 재고(출 7:14-25),” 『신학사상』 제 128집 (2005년/봄), 35-58쪽.
- _____, “개구리 재앙(출 8:1-15) 재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40집 (2005년), 71-96쪽.
- _____, “이 재앙(출 8:16-19)의 새로운 이해,” 『구약논단』 제 17집 (2005년), 9-31쪽.
- _____, “뱀재 재앙(출 8:20-32) 재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67집 (2010년), 5-26쪽.
- _____, “다섯째 재앙(출 9:1-7) 재고” 『신학사상』 제 150집 (2010년/가을), 7-36쪽.
- _____, “여섯째 재앙(출 9:8-12) 재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73집 (2011년), 55-74쪽.
- Botterweck, J., Ringgren H., and Fabry, H.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XI), (Grand Rapid: Eerdmans, 2001).
- Cassuto, U.,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Trans. I. Abrahams), (Magnes, 1967).
- Childs, B. S.,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4).
- Coats, G. W., *Exodus 1-18* (vol. II), (Grand Rapid: Eerdmans, 1999).
- Durham, J., *Exodus*, (Texas: Word Books, 1987).
- Ford, W. A., *God, Pharaoh and Moses: Explaining the Lord's Actions in the Exodus Plague Narrative*, (UK: Paternoster, 2006).
- Fretheim, T. E., *Exodu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91).
- Hoffmeier, J. K., *Israel in Egypt: The Evidence for the Authenticity of the Exodus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Hort, G., “The Plagues of Egypt,” *ZAW* 69(1957) 84-103쪽 & 70(1958) 48-59쪽.
- Houtman, C., *Exodus* (vol. 1, 2),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3, 1996).
- Humphreys, C. J., *The Miracles of Exodus: A Scientist's Discovery of the Extraordinary Natural Causes of the Biblical Stories*, (New York: HarperCollins, 2003).
- Larsson, G., *Bound for Freedom: The Book of Exodus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Hendrickson, 1999).
- Loewenstamm, S. A., *The Evolution of the Exodus Tradition* (Hebrew orig, 1965),

(Jerusalem: Magnes, 1992).
Noth, M., *Exodus* (German orig. 1959)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2).
Propp, W. H. C., *Exodus 1–18* (AB 2), (New York: Doubleday, 1999).
Tov, I.,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Fortress: Minneapolis, 2001).

검색어

출애굽기
우박재앙
땅
개념성
이스라엘

The Warning of the Seventh Plague (Ex 9: 13–21) Reconsidered

Sok Chung Cha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Kwandong Universit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o-called “Hail Plague,” the 7th plague among 10 plagues described in Exodus. Because the text of the plague narrative is fairly long, I divide the whole text into two sections (9: 13–21 and 9: 22–35). In this paper the first part of the text is analyzed and critically annotated.

The 7th plague is to destroy the people, animals and vegetables out in the field. Those who are inside would not be harmed by this plague. Pharaoh's courtiers had two options: bringing their servants and animals into the houses or leaving them out in the field. If all the servants were brought into the houses, there would not be a human victims by the plague. Therefore, the main target of this plague had to be those vegetables and trees which could not be moved inside.

Unlike the previous plagues, it was possible for the Egyptians to avoid the hail plague if they believed in the words of YHWH spoken by Moses. The inevitable question focuses on the reason why YHWH gave those courtiers options to be exempted from the plague. Certainly the number of death would be reduced if some of the courtiers listened to Moses' warning.

In conclusion, the main target of the 7th plague seems to be anything alive in the field. It means all the living beings in the land would be dead by the severe hailstorm as long as they are in the field. In the first half of the hail plague text, the overarching conceptuality is the land which is the space of death. The warning of the 7th plague(9: 13-21) is definitely highlighting this undeniable emphasis throughout the text.

Keywords

Exodus

Hail Plague

Land

Conceptuality

Israel

■투고일: 2011년 3월 30일

■심사일: 2011년 4월 2일

■게제확정일: 2011년 5월 8일